상월결사 정신, 佛緣맺기로 발현

수미산원정대 · 상월청년회 일제히 2기 입재

수미산원정대 28일 118명 입학
1기 47명 졸업, 동문회도 출범
자승 스님 법문 "바른 행" 당부

상월청년회, 23일 33명 입학
1·2기 70여 명으로 조직 확대
'적극적 찾아가는 불교' 다짐



'수미산원정대'는 10월 28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중흥을 위한 상월결사 정신이 불연맺기로 전방위 확산되고 있다.

불교인연맺기의 핵심 주체인 '수미산원정대'(회주 자승)는 10월 28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먼저 1기 졸업식을 겸한 수계식으로 시작됐다. 불교와 인연맺기를 주제로 한 수미산원정대는 1기로 총 73명이 입학했고, 47명이 졸업했다. 수미산원정대는 교육 이수 후 졸업시 비불자를 차기 대원으로 안내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1기생 73명 중 가톨릭 8명, 개신교 7명, 무교 34명으로 전체인원 중 비불자가 60% 이상이다.

이날 수미산원정대 회주 자승 스님은 증명법사로 직접나서 "계는 드나드는 출입문과 같아 개차법을 잘써야 한다. 부처님 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이라며 "불자의 바른 행을 위해 오랜세월 동안 지은 잘못을 삼보전에 모두 참회해야 한다"고 수계법문했다.

1기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증서와 함께 회주 자승 스님이 졸업생들의 목에 특별 제작된 만의가사를 걸어주며 불자로서의 활동을 당부했다.

1기 졸업생을 대표해 육현표 수미산원정대 동문회장은 "포교와 성찰, 실천이라는 원력을 세웠다. 앞으로 수미산원정대 1기와 2기가 힘을 합쳐 활동하자"고 말했다.

원정대 단장을 맡고 있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많은 이들을 위한 부처님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수계사로 연비의식을 집전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비불자들이 불교와 새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차별없는 법석이 바로 수미산원정대"라며 "종단의 큰 기쁨이자 전법포교의 새로운 활력인 이들을 본받아 새 신도 안내 강화와 수계식 활용방안을 고안하겠다"고 전했다.

수계식 후 행사는 2기 입학식으로 이어졌다. 2기 수미산원정대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이광순 바둑연맹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등 118명의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상월정신을 청년들에게 전하는 '상월청년회'도 10월 23일 2기 입학을 통해 조직 규모를 70여 명으로 확대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 상월결사 총도감)가 10월 23일 수국사서 진행한 상월청년회 1기 수료식 및 2기 입재식에서는 1기 28명이 수료를, 2기 33명이 새로 입학했다.

상월청년회는 동국대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들을 비롯해 2030세대의 다양한 직군 청년들로 구성된 불자조직이다. 찾아가는 불교의 상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문화교육과 봉사 등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머리로 불교를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실천행이 필요하다. 실천하는 청년회로 거듭나도록 적극 돕겠다"며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이 관심 갖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곁에 있음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제준 상월청년회장(前동국대 총학생회장)은 "상월결사는 불교변화의 중심이다. 그런 의미를 잘 되살려 2기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10.27법난 41주년 추념법회 봉행

조계종 총무원, 10월 27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진상규명 · 명예회복 요구
승려문예 · 추념곡 시상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27법난 제41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추념식에는 명예원로의원이자 10.27법난피해자모임대표 명선 대종사와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등 교역직 스님, 법난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추념법회는 10.27법난 및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법난 당시 강제 연행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1770여명, 특히 고문과 폭행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은 스님들을 추념하며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알려진 사실만 피해의 전부가 아니"라며 "불교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와 종교적 청정성 훼손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무형의 피해"라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특히 10.27법난 피해 생존자는 물론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 금곡 스님도 "10.27법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효가 없다"며 "10.27법난 피해자와 조계종단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념법회에서는 10.27법난 41주년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승려문예 공모전과 추념곡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혜해 스님이 '가사를 정대하며'로 시 부문 대상을, 법념 스님이 '진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로 산문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서현 스님과 종명 스님이 시 부문 우수상을, 지몽 스님과 영우 스님이 산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념곡 공모전에는 임대열씨가 '연꽃이 다시 필 때까지'로 작사부분 최우수상을, 정혁진씨가 '누명의 굴레 벗고'로 작곡부문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류복희 · 강주현씨가 작사 부문 우수상을 최주원 · 강주현씨가 작곡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임은호 기자

"코로나 후 불교문화 체험 콘텐츠 상품화 시급"

문화창달위, 10월 26일 불교문화비전 토론회

이재수 교수, 주제 발제서
IT기술 융합 · 설계 강조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불교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불교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0월 26일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불교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토론회 및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 이번 좌담회에는 이영숙 동국대 영상콘텐츠연구원 교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 등 종단 내 불교문화유관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은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이재수 교수는 '불교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불교계의 문화정책 방향과 콘텐츠 개발 및 불교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이 교수는 4~9월 6개월간 불교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3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트렌드 분석 △불교문화 콘텐츠 현황과 활용정책 △불교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책 방향 제시 등이다.

이 교수는 이날 불교문화 체험을 상품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비대면 연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주목했다. 메타버스 활용은 최근 불교계 핫 이슈 중 하나로, 서산 보원사, 오대산 월정사 등도 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선보여 눈길을 끈바 있다.

이 교수는 "실감콘텐츠 지향으로 불교문화콘텐츠의 미래 기반을 선도해야 한다"며 "현실세계를 초월한 새로운 미래공간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제 콘텐츠 분야를 넘어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불교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도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뿐 아니라 불교 대표 브랜드인 템플스테이의 활용도 강조했다.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사업으로서 각광 받고 있음에 주목한 이 교수는 "코로나19 종식 후 국내여행에서 희망하는 활동은 자연 및 풍광 감상과 휴식이며 이는 불교문화관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광트렌드 변화로 비대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전망되고 스마트관광사업 등 디지털 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 관광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호국 홍제사, 장병포교 산실 터전 마련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홍제사 교육관' 개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는 10월 24일 충남 계룡시 소재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교육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육 · 해 · 공군 본부 군승,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인 해군총장 부석종 제독과 계룡대 호국사 통합신도회장 유재문 장군, 예비역불자회장 박대섭 예비역 장군 불자, 그리고 지역 현역 군불자 및 일반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관 주차장 인근 야외에서 봉행된 개관법회는 신중기도를 시작으로 불사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호국 홍제사는 2016년 1월 5일 국방부 중기 계획에 반영돼 2018년 1월 18일 신축부지 선정, 총 50억 예산 규모로 불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관은 홍제사 템플스테이관 등으로 다목적 활용되며 25객실에 140명 수용가능하다. 코로나 상황에 맞게 소법당에서 각 객실로 실시간 법회 영상이 송출 가능하도록 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이 교육관은 앞으로 완공될 대웅보전 법당과 함께 계룡대 호국홍제사의 핵심 시설"이라며 "본 불사인 대웅보전 건립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저희 금륜사는 1991년 회사설립 이후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서원으로 인등을 비롯한 불사용품 제작에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30년의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끊임없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원목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 금륜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지향의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010-3781-2460 / 031-534-0048 / 팩스 031-532-2468


불단 · 닫집 · 인등


영단


원불전